

Medical Symptoms



At the end of this lesson, you will be able to talk about medical symptoms. To reach this objective, you will study and practice the vocabulary and grammar needed to describe medical symptoms, as well as ask and respond to questions about health, well-being, fever, disease, operations, and medical treatment.

Describe Symptoms

- Ask about and respond to questions about personal comfort/discomfort
- Ask about and respond to questions about one’s health and well-being
- Express concern and worry about one’s sickness
- Ask about and respond to questions about fever, disease, operations, and medical treatment
- Talk about health problems and describe symptoms



pages 64-76

INTRODUCTION

pages 77-79

VOCABULARY

Pages 80

CULTURAL NOTES

pages 81-86

APPLICATION ACTIVITIES

pages 87-88

SKILL ENHANCEMENT

pages 89-92

HOMEWORK



Tip of the Day

Who or What is Responsible for Illness?

Cold sores around the mouth or on the lips are known to be caused by the herpes virus. This was only discovered a few decades ago. However, even before the cause of cold sores was identified, ancient Koreans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cold sores usually only erupt when a person is out of shape. Although they knew nothing about the virus, which is the direct cause of cold sores, they understoo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symptoms occurred. Then, instead of trying to treat the visible symptoms, they recommended that the patient consume easily digestible, nutritious meals and get plenty of rest. Hence, the patient effectively enabled the restoration of the body, so that the virus (still unknown to them) could not survive.

This type of medical wisdom handed down from the remote history of Korea has been based on the idea of restoring the body to its best physical condition, instead of trying to kill an external cause of a disease. The cause of a certain disease or sickness was usually thought to lie inside, not out. Each human being is held responsible for his/her own health, not the outside cause of their symptoms. Thus, restoring the inner balance of the body was deemed most important and could not be done without the effort of the patient himself. This logic has led the traditional Koreans to pay far more attention to preventive medicine than the western medicine of today.



Lesson Scenario - Symptoms

Private Roger Smith talks with Specialist Young-kie Min about the medical symptoms of a cold he has at present. Read the dialogue below and answer the questions that follow.

영기: Roger, 감기가 심한가 봐요.

로저: 예, 밤새 기침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영기: 감기약을 먹고 자지 그랬어요.

로저: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새벽이 되니까 기침이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기: 다른데는 괜찮아요?

로저: 목이 아프고, 팔다리가 쭈시네요.

영기: 몸살이 걸친 모양이에요. 약 먹고 푹 쉬어야 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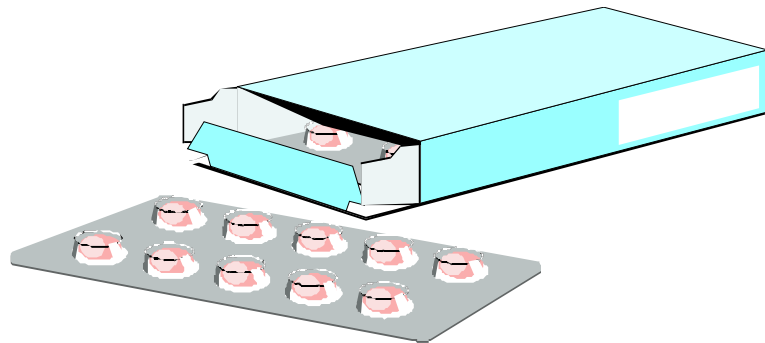
로저: 부대에 대신 전화 좀 해 주겠어요. 목이 아파서 전화하기도 귀찮네요.

영기: 그렇게 할게요. 걱정말고 푹 쉬고 있어요.

로저: 고마와요.

Scenario Exercise

1. 로저는 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나요?
 - a. 일 때문에
 - b. 공부 하는라
 - c. 밤새 기침을 해서
2. 로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 a. 감기 몸살에 걸렸다.
 - b. 부대에 가야 한다.
 - c. 잠을 푹 잤다.



Exercise 1 (Role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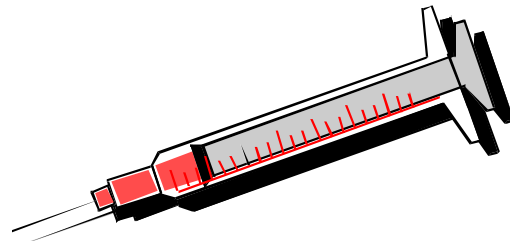
The class should divide into pairs for this activity. Referring to the following examples, practice asking and answering questions, in Korean, with reference to your physical condition.

(1) Ask about personal comfort/discomfort

괜찮으세요?	네, 이젠 괜찮아요.
편찮으세요?	네, 배가 너무 아프네요.
견딜만 하세요?	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못 견디시겠어요?	아니오, 이젠 견딜만 해요.
아주 못 견디시겠어요?	아니오, 이젠 괜찮아요.
많이 아프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네, 아직 못 일어나겠어요.
많이 불편하세요?	

(2) Who, Where, What, When

몸이 좀 어떠세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좀 어떠세요?	속이 쓰려서 죽겠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팔다리가 쭈시네요.
어디(가)안 좋으세요?	목이 아파 침을 못 삼키겠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겠어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많이 나왔어요.



Exercise 2 (Pair Work)

Working with your partner, match the corresponding sentences from the boxes below. Discuss your selections with the rest of the class, in Korean.

감기는 좀 어떠세요?
 기침은 좀 가라 앉았나요?
 열은 좀 내렸나요?
 소화는 좀 되세요?
 두통은 좀 가셨나요/덜 하세요?
 속쓰린 것은 좀 어때요.

기침은 좀 덜한데, 열은 안 내리네요.
 뒷골이 여전히 좀 아파요.
 예,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니 많이 나아졌어요.
 네, 이젠 정상 체온이에요.
 약 먹고나니까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밤새 기침하느라 한 숨도 못 잤는데, 아직도 그러네요.

Exercise 3

Match the following sentences about people's illnesses with the sentences in the blue box that state the proper ways of showing concern for sick people. Class discussion, in Korean, will follow.

- (1) 체온이 40 도를 오르내린다.
- (2) 몸살이 나서 오한이 나고 온몸이 쭈신다.
- (3) 피곤해서 입 주위가 부르튼다.
- (4) 감기에 걸려서 자꾸 콜록콜록 한다.
- (5) 입맛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하겠어요. 열이 너무 높아요.
 약먹고, 이불을 폭 덮고 한잠 폭 주무세요.
 좀 쉬셔야 하겠어요.
 기침이 심하군요. 제가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사올게요.
 뭘 좀 잡수셔야 할텐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Exercise 4 (Group Work)

How to Show Your Concern for a Sick Person

The instructor will read the situations below, describing the symptoms of sick people. Then, groups will compete by calling out (in Korean) the appropriate way of showing their concern for that particular sick person. They may refer to the blue box below for their responses. The group that calls out the correct sentence first will receive a point. To make the game more interesting, any outright mismatch (judged by the instructor) will cost the group to lose a point. The group with the most points at the end of the game wins.

- (1) 열이 몹시 나고 손발이 차다.
- (2) 온몸이 쭈시고 오한이 난다.
- (3) 입 주위가 부르트고 입안이 헐었다.
- (4) 기침을 자주 콜록콜록 하고 콧물이 많이 흐른다.
- (5) 입맛이 없어서 통 식사를 하지 못한다.
- (6)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열이 난다.
- (7) 자꾸 설사가 나고 어지럽다.
- (8) 이틀째 화장실에 가지를 못했다.
- (9) 눈이 가렵고 재채기가 자꾸 나는데 감기는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하겠어요. 열이 너무 높아요.
 감기약을 먹고 좀 누워 있는 게 좋겠어요.
 보리차를 자주 드시고 좀 쉬세요.
 주스를 많이 드시고 되도록 고기보다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꿀꿀칠십이라는 말이 있다.
 알레르기 약을 드셔야 하겠어요.
 아스피린을 먹고 좀 누워서 쉬세요.
 약 먹고, 이불을 푹 덮고 한잠 푹 주무세요.
 비타민 C 를 드시고, 좀 쉬셔야 하겠어요.
 기침이 심하군요. 제가 약국에 가서 약을 좀 사올게요.
 죽이라도 좀 끓여드릴까요.

Exercise 5 (Pair Work)

Working with a partner, review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 response. Compare your answers with those of your classmates.

- (1) 감기가 좀 어떠세요?
 (a) 기침은 멎었는데, 여전히 열이 높아요.
 (b) 소화가 잘 되고, 밥맛이 좋아요.
 (c) 혈압이 높은 것 같아요.
- (2) 배 아픈 것 좀 가라앉았나요?
 (a) 약 먹고 나니 좀 괜찮아지네요.
 (b) 온몸이 쭈시고 오한이 나요.
 (c) 입안이 마르고 열이 나네요.
- (3) 숨쉬기는 어떠세요?
 (a) 계속 가슴이 답답해요.
 (b) 콧물이 흘러서 아주 불편해요.
 (c) 속이 쓰려서 아무 것도 못 먹겠어요.
- (4)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a) 언제 퇴원하지요?
 (b) 가서 소변 검사 해야지.
 (c) 약 먹고 한숨 푹 자래요.
- (5)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밥을 많이 먹지 마세요.
 (b) 식사 후 30분 지난 뒤에 드세요.
 (c)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 (6) 소변검사 결과가 어때요?
 (a) 혈압이 좀 높대요.
 (b) 요당이 많이 높대요.
 (c) 소변을 자주 봐야 한대요.

- (7) 혈액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a)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b) 피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c) 헌혈은 좀 해야 하겠어요.

- (8) 마취는 풀렸나요?
 (a) 예, 이제 수술 부위가 좀 아픈가봐요.
 (b)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해요.
 (c) 수술이 얼마나 걸릴까요?

Exercise 6 (Pair Work)

What are the symptoms of this disease or sickness?

With the help of your partner, circle the appropriate symptoms of the following illnesses. Compare and discuss your answers, in Korean, with those of your classmates.

(1) 열이 나서/나니 _____

이불을 덮고 있을 수가 없다.
 갈증이 몹시 난다.
 입안이 다 헐었다.
 헛것이 보인다.
 어지럽다.
 입맛이 통 없다.
 뜨거운 것이 마시고 싶다.



(2) 감기에 걸려서 _____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많이 난다.

열이 나고 목이 부어 아프다.

기침이 나고 코가 막힌다.

눈과 귀가 가렵다.

팔다리가 쭈시다.

소화가 잘 된다.

속이 쓰리다.

잠이 안 오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

코가 다 헐었다.

재채기를 많이 하게 된다.

골골하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Tip of the Day

당뇨병 or 당혈병

In Korean, diabetes is called “당뇨병”, which literally means “sugar-urine disease”. Although it is true that patients suffering from diabetes may show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sugar in their urine, the level of sugar in the urine itself cannot accurately show whether the person has diabetes or not, as the level can vary from person to person. Instead, measuring the level of blood sugar can be a far more accurate indicator of diabetes. When one’s blood sugar level exceeds 140 mg/dL on an empty stomach in the morning, or if their level exceeds 200 mg/dL two hours after any meal, then the person can be diagnosed as having diabetes. Since it is the level of blood sugar that really matters, not the level of sugar in the urine, some people think that diabetes in Korean should be “당혈병” instead of “당뇨병”. Diabetes is also occasionally called “소갈증”, as the patient eats a lot and feels thirsty all the time.

Exercise 7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with the appropriate predicates from the box below. Compare your answers with those of your classmates.

- (1) 소화가 안 되니 _____
- (2) 목이 부어서 _____
- (3) 열이 많이 나서 _____
- (4) 오한이 나서 _____
- (5) 두통이 심해서 _____
- (6) 소화가 안 돼서 _____
- (7) 입맛이 없어서 _____
- (8) 설사가 심해서 _____
- (9) 기침을 너무 하니 _____
- (10)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_____
- (11) 빈혈이 심해서 _____

배가 아프다.

몹시 어지럽다.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다.

입안이 바짝 마른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탈수 증세를 보인다.

가슴이 아프다.

소주 반 컵에 날계란 하나 넣고 고추가루 한 슷가락 섞어서 마셨다.

몹시 가렵다.

이불을 뒤집어썼다.

두통약을 먹었다.

소화제를 먹었다.

Exercise 8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with the appropriate predicates from the box below. Compare your answers with those of your classmates.

- (1) 배가 아파서 _____
- (2) 두통약을 먹었더니 _____
- (3) 어지러워서 자리에 _____
- (4)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더니, _____
- (5)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 _____
- (6) 탈수증세를 보여서 _____
- (7) 몸이 가려워서 옷을 벗어 보니 _____
- (8) 소화제를 먹었더니 _____

보리차를 많이 마시게 했다.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 있었다.
 배 아픈 것이 나왔다.
 머리 아픈 것이 좀 덜하다.
 소화제를 먹었다.
 밥대신에 죽을 먹었다.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다.
 오한 나고 추운 것이 좀 덜 한 것 같다.

Exercise 9

Read the following statements and mark them either true or false. Be ready to defend your answers, in Korean.

- (1) 열이 많이 나면 아스피린을 먹는다.
- (2) 소화가 안 돼서 두통약을 먹었다.
- (3) 몸살이 나면 설사약을 먹는다.
- (4) 입맛이 없어서 밥을 많이 먹었다.
- (5) 두드러기가 온 몸에 나서 아주 시원하다.
- (6) 어지러워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 (7) 기침을 많이 하니 가슴이 아프다.

Exercise 10 (Pair Work)

Review the following phrases with your partner. Are they in the right order? If not, rearrange them to form coherent Korean sentences. Compare your completed sentences with those of your classmates.

- (1) 열이 아주 높다 - 해열제를 먹는다 - 열이 내린다
- (2) 배가 아프다 - 소화가 잘 된다 - 소화제를 먹는다
- (3) 입안이 마른다 - 열이 높다 - 해열제를 먹는다
- (4) 두통이 있다 - 머리가 안 아프다 - 아스피린을 먹는다
- (5) 죽을 먹는다 - 입맛이 없다 - 기운이 좀 난다
- (6) 탈수 증세가 있다 - 보리차를 많이 마신다 - 어지러운 것이 덜 하다

Exercise 11 (Pair Work)

Working in pairs, act out the following dialogue about having a fever, inserting the Korean sentences given below in the blank. Feel free to add your own information and remember to switch roles, so you can both practice.

A: 체온을 좀 재 볼까요?

B: 어떨까요?

A: _____.

열이 높은데요.

체온이 낮은데요.

열이 오른 것 같은데요.

열이 내린 것 같은데요.

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열이 좀 높은 것 같네요.

Here are some other expressions describing a patient's temperature. Be prepared to use them in a dialogue.

열이 펄펄 끓는다
 몸이 펄펄 끓는다
 몸이 차디차다.
 손발이 차디차다.
 몸이 불덩이다.
 손발이 얼음덩이다

Exercise 12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and choose the appropriate answers. Explain why the other two answers are incorrect,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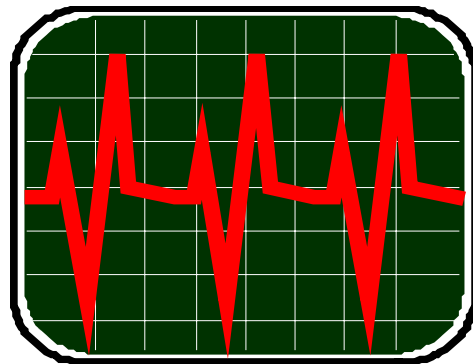
- (1) 어디를 수술 하는 거예요?
 (a) 고려대학 병원에서 합니다.
 (b) 맹장염 수술이에요.
 (c) 우리 형이 수술 받아요.
- (2) 수술할 때 아프지 않았어요?
 (a) 별로 아프지는 않았어요.
 (b) 소화가 잘 안 되네요.
 (c)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 (3) 마취는 언제 깎니까?
 (a) 한 시간 정도 있으면 깎 겁니다.
 (b) 한숨 폭 자면 나아질 것입니다.
 (c) 열이 높아서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 (4) 수술은 잘 되었습니까?
 (a) 네,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b) 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c) 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 (5) 어디서 수술합니까?
 (a) 집에 있습니다.
 (b) 고대병원에서 합니다.
 (c) 내일 아침에 합니다.

Exercise 13

Match the following sentences with their corresponding responses in the box below.
Then, act out the scenarios with a partner.

- (1) 다리를 다치셨어요?
- (2) 감기 걸린지 오래 됐어요?
- (3) 어제부터 설사가 나네요.
- (4) 열이 있습니까?
- (5) 변비가 이틀 계속되네요.
- (6)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 (a) 해발 2000 미터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 (b) 네, 사흘 전부터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흘렀어요.
- (c) 네, 무릎을 다쳤어요.
- (d) 네, 땀도 나고 춥기도 하네요.
- (e) 과일 주스를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f) 어제 무엇을 드셨는데요?



동사 (Verbs)

가라앉다	to calm down
가렵다	to itch
견딜만하다	to be bearable
골골하다	to be sick all the time
낫다	to get well
목이 아프다	to have a sore throat
몸살나다	illness from fatigue
복용하다	to take (medicine) – formal word
부르르다	to blister
삐다	to sprain (one’s ankle, arm, leg, etc.)
삼키다	to swallow
속이 쓰리다	to have a stomachache
쭈시다	to feel sharp pain, to feel prickly
어지럽다	to feel dizzy
오한이 나다	to feel, to have a chill or cold sweat
의식이 없다/의식을 잃다	to be unconscious/to lose consciousness
입맛이 없다	to have no appetite
퇴원하다	to be discharged from a hospital
편찮다	to be sick, uncomfortable
헐다	to be worn out, sore
(고통)경감하다	to relieve



증세 (Symptoms)

고혈압	high blood pressure
당뇨	sugar in the urine, diabetes
두드러기	breaking out, rash
두통	headache
뒷골	back of the brain
마취	anesthesia
물리치료	physical therapy
복통	stomachache
설사	diarrhea
소변검사	urine test
소화	digestion
식중독	food poisoning
요당	sugar content in human urine
요통	backache
재채기	sneezing
처방	prescription
천식	asthma
탈수증세	dehydration
해열제	fever remedy
혈압	blood pressure
경련	cramp
외과	surgery
귀앓이	earache

부사 (Adverbs) / 형용사 (Adjectives)

지끈지끈	adverb used for describing a splitting headache
쿨럭쿨럭	adverb used for describing the sound of coughing
아픈	painful
알레르기의	allergic
어지러운	dizzy

Exercise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vocabulary words from the list. Explain, in Korean, why the other two words were incorrect for the statements.

- (1) 몸살이 나면 _____ 이 나서 몸이 떨린다.
 (a) 두드러기
 (b) 오한
 (c) 요통
- (2) 열이 높고 머리가 아프니까 _____ 이 없어 밥을 먹기가 싫다.
 (a) 요당
 (b) 혈압
 (c) 입맛
- (3) 열이 높아 걱정을 했는데, _____ 를 먹고 한숨 재웠더니 나아졌다.
 (a) 해열제 (X)
 (b) 소화제
 (c) 진통제
- (4)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우므로 _____ 을 조심해야 한다.
 (a) 식중독
 (b) 천식
 (c) 혈압
- (5) 수술 뒤 _____ 에서 깨어나면, 수술부위가 아프기 시작한다.
 (a) 탈수증세
 (b) 마취
 (c) 처방
- (6)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머리가 _____ 아프다고 한다.
 (a) 어리둥절
 (b) 지끈지끈
 (c) 빙글빙글
- (7) 혈압이 높아서 그런지 어지럽고 뒷골이 _____
 (a) 땡긴다
 (b) 시원하다
 (c) 가렵다

Physical vs. Figurative Meanings

As in English, expressions that may have first been used to describe medical symptoms, have extended their meaning to cover mental states in figurative ways. For example, “속이 쓰리다” originally meant that “a person has a pain in his/her internal organs”. In time, it has also come to mean that “a person has a pain in his/her mind because of regret or envy”. Likewise, in old Korean, “애” used to mean “intestines”, so “애가 끊어진다” meant that “a person had a severe pain in his/her intestines”. However, as time passed, this particular anatomy word gradually lost its original physical meaning and now it is used only in its figurative sense, in such expressions as: 애가 탄다, 애가 끊는다, 애간장을 녹인다. The following list contains some more expressions, which have gone through and are still going through semantic changes.

속이 쓰리다
속이 아프다
속이 탄다
속이 불편하다
골치가 아프다

골머리를 앓다
가슴이 아프다
배가 아프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끊는다



Activity 1 (Pair Work)

We can say that medical treatment exists from two perspectives, from that of a physician or health care professional and from that of a patient. Practice using the different verbs below to express these perspectives. One person will play the doctor or nurse and the other will act as the patient. Using the cues given, each partner will express the concepts first in a declarative sentence and then in the form of a question. Refer to the example as a guide.

주사 놓다, 주사 맞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다, 약을 처방 받다.
 약을 복용하다/먹다.
 초음파검사를 받다.
 엑스레이를 찍다.
 진찰을 하다, 진찰 받다.
 약을 주다, 약을 받다/먹다

Example: (cue) 치료

치료를 하다 (의사)
 치료를 받다 (환자)
 치료를 했습니까? (의사)
 치료를 받았습니까? (환자)

Cues:

- (1) 주사
- (2) 약
- (3) 초음파
- (4) 진찰

Activity 2 (Group Activity)

Stop! Am I saying it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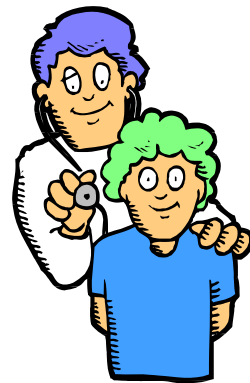
Different symptoms are described by using different verbs and adjectives, which usually form the predicate part of the sentence. The class will split into two groups for this race. When the instructor provides a subject and explains its meaning, the groups will compete to see how accurately they can provide the appropriate predicate in Korean. When providing the predicate, the answerer **MUST** shout “Stop!” first, in order to have the floor. The group that provides the most accurate predicates wins the race.

Examples:

혈압이 낮다/높다
 당뇨가 심하다
 심장이 약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간/위/장/폐/콩팥 이/가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쓰리다/거북하다
 변을 제대로 못 본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
 요통이 심하다
 복통이 심하다

Subjects:

- (1) 혈압
- (2) 당뇨
- (3) 심장
- (4) 복통
- (5) 속
- (6) 요통
- (7) 소화
- (8) 콜레스테롤 수치
- (9) 간
- (10) 변



Activity 3

Refer to the following examples and select the appropriate verb for each blank below. Compare your answers with those of your classmates.

Examples:

주사는 맞았습니까?/네, 맞았습니다.

약은 먹었나요?, 약은 복용하셨습니까?/네, 먹었습니다.

혈압은 잰나요?/네, 잰습니다.

소변검사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혈액검사는 했나요?/네, 했습니다.

엑스레이는 찍었습니까?/네, 찍었습니다.

초음파검사는 했어요?/예, 했습니다.

(1) 주사는 언제 _____?

- (a) 하나요
- (b) 재나요
- (c) 맞나요

(2) 엑스레이 _____ 결과는 나왔습니까?

- (a) 한
- (b) 찍은
- (c) 잰

(3) 약은 언제 _____?

- (a) 복용하셨나요
- (b) 하셨어요
- (c) 맞았어요

(4) 혈압을 _____?

- (a) 재셨어요
- (b) 했어요
- (c) 찍었어요

(5) 소변 검사 결과 _____?

- (a) 잰어요
- (b) 나왔어요
- (c) 찍었어요

Activity 4 (Pair Work)

Review the following expressions below with a partner. Ask your partner questions, in Korean, concerning personal comfort/discomfort. Your partner should reply appropriately, also in Korean. Reverse roles.

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열이 내리지 않네요. 많이 나아졌어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여전히 아프네요. 아파 죽겠어요. 어지럽네요. 이젠 괜찮아요.
---	---

APPLICATION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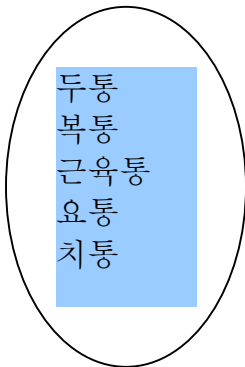
Activity 5

Select the appropriate manner of showing concern for the people with the given illnesses below. Defend your selections to the rest of the class, in Korean.

- (1) 고혈압환자
 - (a) 혈압은 좀 내려갔습니까?
 - (b) 혈압은 좀 올라갔습니까?
 - (c) 혈당검사는 받으셨나요?
- (2) 당뇨병환자
 - (a) 열은 좀 내렸나요?
 - (b) 식사 많이 하셨나요?
 - (c) 인슐린 주사 맞으셨나요?
- (3) 열병환자
 - (a) 두툼한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 (b) 열이 내리게 해열제를 드세요.
 - (c) 차가운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 (4) 알레르기환자
 - (a)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마세요.
 - (b) 식사를 충분히 하세요.
 - (c)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Activity 6 (Pai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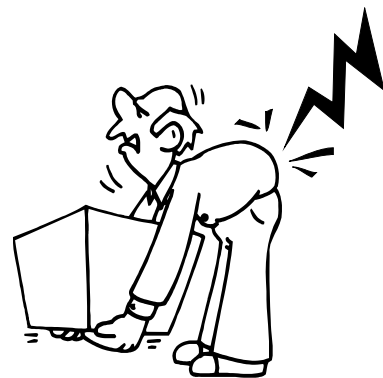
Review the following structure below with a partner. Afterwards, select the appropriate responses to the questions concerning illnesses. Then, develop a dialogue with your partner, in Korean, where you must determine one's state of health. Role-play it for the class.



은 좀 어떠세요?

Responses:

- 머리 아픈 것은 좀 나아졌어요.
- 아픈 것은 가라앉았는데, 찬 것을 마시면 이가 시리네요.
- 파스를 붙이고 손으로 주물렀더니 괜찮네요.
- 여전히 속이 살살 아픈데요.
- 허리를 펴지 못하겠어요.



Activity 7

Select the appropriate Korean verbs to complete each sentence below. Compare your answers with those of your classmates.

(1) 이가 두 개

- (a) 흔들려요.
- (b) 빠졌어요.
- (c) 데었어요.

(2) 입안이

- (a) 부러졌어요.
- (b) 헐었어요.
- (c) 흔들려요.

(3) 다리가

- (a) 부러졌어요.
- (b) 흔들려요.
- (c) 빠졌어요.

(4) 속이

- (a) 거북해요.
- (b) 부었어요.
- (c) 흔들려요.



Activity 1 (Group Activity)

Quack game – You Seem to Have Diabetes!

Divide the class into “physicians and patients”. Patients will receive a slip of paper, which contains a statement that describes their symptoms. The physicians will review the symptoms and make their diagnosis, in Korean. When all the patients have received their diagnoses from the doctors, the class will discuss the validity of each, in Korean.

Possible Symptoms: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릅니다.
 열이 많이 나고 코가 막힙니다.
 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돋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힘이 없고 입맛이 없습니다.
 갈증이 심하고 자주 배가 곱습니다.
 소변을 자주보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체중이 빠집니다.
 허기가 지고 어지럽습니다.
 숨이 가쁘고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목이 간지럽고 재채기가 납니다.
 팔다리가 쭉시고 오한이 납니다.
 허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안 나옵니다.
 소화가 안되어서 속이 거북합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나옵니다.
 자꾸 하품이 나고 졸립니다.
 코와 눈이 가렵고 재채기가 나옵니다.
 가래가 끓고 숨이 찹니다.
 손발이 차고 자꾸 하품이 납니다.
 뒤통이 쭉시고 어지럽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오한이 나고 팔다리가 아픕니다.

Examples of Sickesses or Diseases:

감기, 독감, 몸살, 고혈압, 식체, 위염, 방광염, 당뇨병, 식중독, 피로,
 알레르기, 천식, 소화장애

Activity 2 (Role Play)

Role-play as a doctor and a patient, using the cues given below. You may use the following dialogue as an example.

Example:

의사: 어디가 편찮으세요?

환자: 기침이 많이 나고 콧물이 계속 나오네요.

의사: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환자: 어제 아침부터 아팠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 (1) 목감기 (목이 아프다, 침을 삼킬 수 없다, 목이 부어 있어 숨 쉬기가 힘들다, 열이 난다, 머리도 아프다...)
- (2) 고혈압 (뒷골이 뻥긴다, 어지럽다, 숨이 차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 (3) 소화불량 (속이 부글거린다, 토할 것 같다, 입맛이 없다, 화장실에 가지 못했다.)
- (4) 두통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속이 메스껍다, 입맛이 없다.)
- (5) 알레르기 (눈이 가렵다, 눈물이 난다, 콧물이 흐른다, 재채기를 한다, 목이 가렵다, 귀속이 가렵다.)



1.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with their appropriate predicates, from the blue box below. Be ready to defend your answers, in Korean, in class.

- (1) 숨이 _____
- (2) 가슴이 _____
- (3) 술을 많이 마셨더니 _____.
- (4)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_____
- (5) 감기에 걸려서 목이 _____
- (6) 코가 막혀서 _____
- (7) 오한이 나서 _____
- (8) 몸살이 나서 온 몸이 _____

차다/가쁘다
 쭈시고 아프다
 답답하다
 속이 쓰리다
 가렵다
 아프다
 몸이 춥고 떨린다
 숨을 쉬기가 어렵다

2. What seems to be the most visible symptom of the disease described below? Select and explain your answer, in Korean. Then, write a paragraph, in Korean, about symptoms you may have had in the past from being ill.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 경우에는 기흉 (허파를 싸고 있는 막에 공기가 찬다)을 생각할 수 있다.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우고 마른 체격의 사람에게서 이유없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와 결핵으로 인해 폐포가 터지면서 생기는 경우 등이 있다. 일단 기흉이 생기게 되면 숨이 갑자기 심하게 차게 되며 공기를 빼주어야 숨이 차지 않게 되므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한 기흉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 (a) 갑자기 심하게 숨이 찬다.
- (b) 급작스럽게 사망한다.
- (c) 평소에는 건강하다.
- (d) 살이 빠진다.

3. What are the most distinctive symptoms of asthma? Select and explain your answer, in Korean.

천식이 있을 경우에는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하며 기침을하고 쉼쉼거리는 소리가 나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무척 숨이 차고 괴로워하게 된다.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을 하고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모세기관지염으로도 천식과 같이 기침을 하며 쉼쉼거리게 되므로 위의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도록 한다. 대개 치료함으로써 며칠 이내에 멈추어지지만 여러날 계속되는 천식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a) 기침약으로 치료한다.
- (b) 치료약이 아직 없다.
- (c) 어린아이에게 주로 발병한다.
- (d) 기침을 하면서 쉼쉼거린다.

4. Listen to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 below.
(Listen to the homework audio CD Track 88 - M5L3HW4)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correspond to the recorded pa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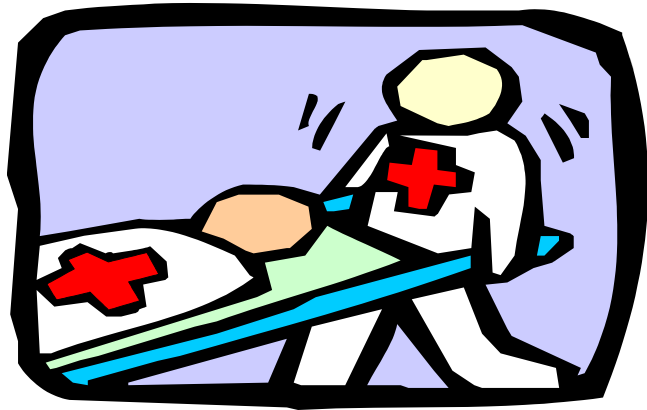
- (a) 비타민씨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
- (b)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 (c) 보약을 먹어야 한다.
- (d) 열이 높으면 아스피린을 복용한다.

5. Connect items in both columns that seem to be most related to one another.

- | | |
|---------|---------------------|
| (1) 감기 | (a) 기침, 콧물, 열, 재채기 |
| (2) 고혈압 | (b) 뒷골이 아픴, 혈압강하제 |
| (3) 당뇨병 | (c) 가슴이 두근거림, 답답함 |
| (4) 식중독 | (d) 상한 음식, 구토, 설사 |
| (5) 천식 | (e) 갈증, 쉬 배고픴, 식이요법 |
| (6) 심장병 | (f) 기침이 나고 숨이 참 |

6. Be prepared to use the following expressions for medical emergencies in a dialogue with your partner, in class.

- 구급차 (ambulance)
- 응급실 (emergency room)
-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 수술실 (operating room)
- 119 (911 in the USA)
- 당직의사 (doctor on duty)
- 싸이렌 (siren)
- 종합병원 (general hospital)



7. Listen to the following descriptions of sicknesses or diseases and select the correct names.

(Listen to the homework audio CD Track 89 - M5L3HW7)

(1)

- (a) 결핵
- (b) 고혈압
- (c) 당뇨병

(2)

- (a) 고혈압
- (b) 두통
- (c) 관절염

(3)

- (a) 폐렴
- (c) 감기
- (b) 소화불량

